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급선무”

문 대통령, 특별방역 점검회의 모두발언

“소관 부처 장관, 관리책임 강화… 새 단체장들과 협력 노력
노바백스 백신 국내 생산 시작… 3분기 내 2000만회분 공급
백신 물량 추가 확보 역량 총동원… 모든 방안 강구해줄길”



가세를 주도하는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취약시설 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되어 현장 점검과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됐다”면서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빠른 점증을 위해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 해 주기 바란다”며 “방

부처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추가 확보 주가 구매, 조기 공급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시설과 지역에서

선제검사를 더욱 확대하고, 무증상과

경증 감염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검사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검사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지

금 주로 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에

비해 정확도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정밀검사

이전의 보조적인 검사 방법으로 활

용한다면, 의심 신고 대상이 아닌 숨

은 코로나 감염자를 더 빠르고 손쉽게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방역 상황을 안

정시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루 50만 건의 검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지자체들과 함께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시설과 지역에서

선제검사를 더욱 확대하고, 무증상과

경증 감염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검사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검사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 주로 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에

비해 정확도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정밀검사

이전의 보조적인 검사 방법으로 활

용한다면, 의심 신고 대상이 아닌 숨

은 코로나 감염자를 더 빠르고 손쉽게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

도를 끌어올려야 하겠다”면서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해 확진자 증

가세를 주도하는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취약시설 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되어

현장 점검과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 데 큰 도움

이 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

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됐다”면서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

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빠른 점증을 위해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 해 주기 바란다”며 “방

부처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추가

확보 주가 구매, 조기 공급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시설과 지역에서

선제검사를 더욱 확대하고, 무증상과

경증 감염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검사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검사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

주로 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에

비해 정확도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정밀검사

이전의 보조적인 검사 방법으로 활

용한다면, 의심 신고 대상이 아닌 숨

은 코로나 감염자를 더 빠르고 손쉽게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

도를 끌어올려야 하겠다”면서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해 확진자 증

가세를 주도하는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취약시설 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되어

현장 점검과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 데 큰 도움

이 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

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됐다”면서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

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빠른 점증을 위해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 해 주기 바란다”며 “방

부처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추가

확보 주가 구매, 조기 공급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시설과 지역에서

선제검사를 더욱 확대하고, 무증상과

경증 감염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검사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검사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

주로 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에

비해 정확도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정밀검사

이전의 보조적인 검사 방법으로 활

용한다면, 의심 신고 대상이 아닌 숨

은 코로나 감염자를 더 빠르고 손쉽게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

도를 끌어올려야 하겠다”면서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해 확진자 증

가세를 주도하는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취약시설 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되어

현장 점검과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 데 큰 도움

이 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

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됐다”면서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

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빠른 점증을 위해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 해 주기 바란다